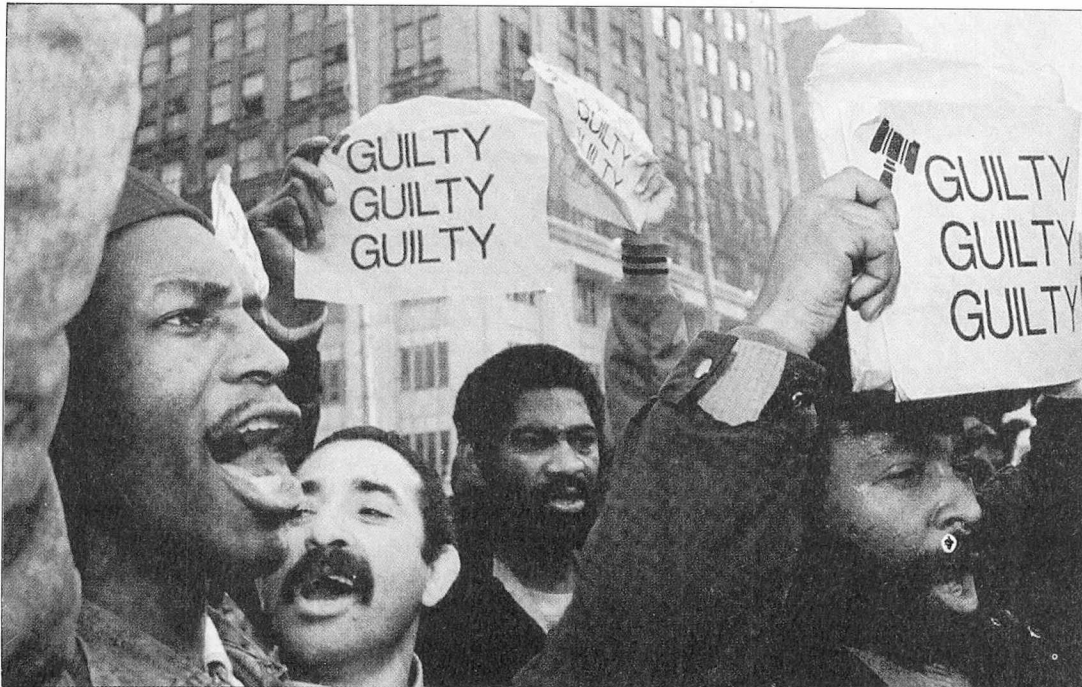


미국내 흑인문제의 '건강한 해결책'

코넬 웨스트 지음 「인종문제」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미국 흑백 인종문제의 해결은 현재로서는 '상식적' 처방 외엔 달리 없다. 사진은 로드니 킹 사건 재판 당시 백인경찰의 유죄를 주장하는 흑인 시위대.

지금부터 수년간 작가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은 지난 로드니 킹 폭행사건과 뒤이어 터져나왔던 1992년 LA 흑인폭동을 미국내 흑인운동의 중요한 기점으로 파악할 것이다. 마치 1955년 흑인소년 에메 킬린치 사건이 그랬고, 또 1965년 와츠 폭동이 그러했듯.

따라서 지금부터 수년간 사회과학자들은 로스엔젤레스 사건이 흑인들의 정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 할 것이고, 특히 백인 경찰과 맞닥뜨렸을 때 위축되는 흑인들의 정신상태를 유심히 살필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미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요즘 흑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였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그 사건인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는 일이다.

최근 프린스턴 대학의 미국내 흑인문제 연구소 책임자로 재직중인 코넬 웨스트(Cornel West) 교수가 상재한 「인종문제」(「RACE MATTERS」, 106 pp, Boston: Beacon Press.)에는 미국 도처의 흑인용 이발소와 미용실 그리고 휴게실에서 들리는 흑인들의 감정을 보다 지적인 차원에서 파진 최초의 분석서이다. 사실 이 책 「인종문제」는 로드니 킹을 구타했던 백인 경찰 네명의 석방 일주년을 맞아 출간되었던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다 알다시피 그 가운데 두명은 지난 달 연방법정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 첫번째 평결이 1960년

대 이후 최악의 도심 폭동을 연출했던 데 반해 이번 평결에서 조용했던 것이 차이라면 차이이다.

미국내 점증하는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다. 그 한 이유는 데릭 벨이 논하듯 인종주의란 미국인의 정신에 영원한 고착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 웨스트 교수는 데릭 벨의 전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종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웨스트는 낙관주의적 안목을 갖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이 책속의 장절 제목은 저자의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전해준다. 「미국내 흑인들의 니힐리즘」이라는 장 제목은 범죄와 마약으로 자멸해 가는 흑인들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으며, 「인종론의 함정」은 다양하게 제기되는 흑인 사회내의 문제점들을 협소한 인종문제의 시각으로 모두 처리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흑인 지도세력의 위기」는 현재 흑인 지식인들과 흑인 정치인들의 자질에 대한 탄식이며 「새로운 흑인 보수주의의 본색」은 저자의 반보수주의적 관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부분인데, 저자는 흑인들의 실업을 미국 전체의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적 조건과 관계짓지 않고, 흑인 실업률이 늘면 무조건 흑인들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보수주의적 관점으로서 흑인 사회의 조건들을 올바르게 분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

고 있다.

웨스트 교수는 “흑인의 성적 능력에 대한 공포야말로 백인 인종주의의 기본 구성물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백인들은 이 근원적 두려움—그들이 흑인에 대한 두려움을 스며들게 하고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기껏 허약한 자기인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인정해 왔듯이 다른 인간간의 성관계와 결혼이야말로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한 공포의 근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인종문제에 관련된 주제를 아무리 다각도로 다루어 봐야 이 터부의 파괴가 선행되지 않는 한, 「미국내 건강한 인종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그의 분석력은 매우 힘차다. 이쯤에서 그는 모든 흑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문을 던진다. “흑인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도심 학교에서 밀려나며, 유럽적 아름다움의 기준에 흑인의 아름다움의 특색이 폄하되고 전대미문의 마약앞에 흑인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점증하는 10대의 임신앞에 우리들은 놀라고나 있는가?”

그러나 웨스트교수의 해결방식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구닥다리 냄새가 나는 데, 대략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는 식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안은 흑백 합동의 건물을 세우고, 부를 재분배하며, 「기본적인 사회복지를 위한 대규모

의 국가재정 개입”, 그리고 용감한 지도력 등이다.

물론 그의 안이 참신하지 않다는 것이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현실은 그의 제안 가운데 여러 것을 이미 해결하고 있거나, 그 해결방안의 출발점에서 있다. 따라서 올해는 로드니 킹 평결과 LA 폭동의 일주년 되는 해가 아니라 버밍햄의 경찰폭력에 대한 항거와 워싱턴 행진, 그리고 케네디의 암살 30주년이 되는 해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말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지 1년 되는 해가 아니라, 30년 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도상에 있는 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현대 정치철학 분야에 존 롤즈(John Rawls) 교수의 「정의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20여년 전 이 책의 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철학 자체의 재탄생으로 인식되었다. 호오를 막론하고 이 책을 영어권에서 발간된 가장 뛰어난 「현대의 고전」으로 손꼽기에 주저하지 않으며, 아마 생각컨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필적할 만한 것이다. 밀의 「자유론」과 마찬가지로 롤즈의 책은 영미 지식계에 자유주의 사상의 헤게모니의 재탄생에 기여했으며 그 영향력은 영어권 밖의 사람들에게도 널리 미친 바 있다. 롤즈의 「정의론」은 수십년간 정치사상계에 화두로서 구실해왔던 점도 밀의 저작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쯤에서 밀과 롤즈의 비교는 끝난다. 밀과는 달리 롤즈의 자유주의는, 특히 최근에 상재된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402 p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에서 체계적 정합성(modesty)과 자유주의를 세계관 혹은 인간의 선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자유주의를 엄밀하게 정치적 이념으로 국한시킴으로써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긍정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의심할 바 없이 롤즈가 자유주의를 세계관으로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현대의 세속적 휴머니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어 있다.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의 저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를 위시한 몇 안되

는 근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계몽주의적 진보관, 즉 역사란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문명을 지향하여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롤즈가 자유주의를 순전히 정치적 측면에서 규정하는 까닭은 자유주의가 개인들과 공동체의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를 떠받치는 正義의 원칙들을 규정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포괄적인 자유주의의 이념은(예컨대 개체성과 개인의 자율성의 이념은 밀과 칸트 자유주의의 핵심을 이룬다) 다른 이상들, 예컨대 종교, 전통 윤리 그리고 자치단체를 결속시키는 이상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롤즈 교수가 현대사회에 깊숙히 깔려있는 이러한 다원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잔인한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맥락에서 인간의 힘(human power)을 거리낌없이 사용한 자연적 결과라고 주장했을 때 심오한 통찰력을 획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품의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선이 다른 선보다 낫다고 말할 어떤 이성적 기준도 갖고 있지 못하다. 자유주의의 문제는 실제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품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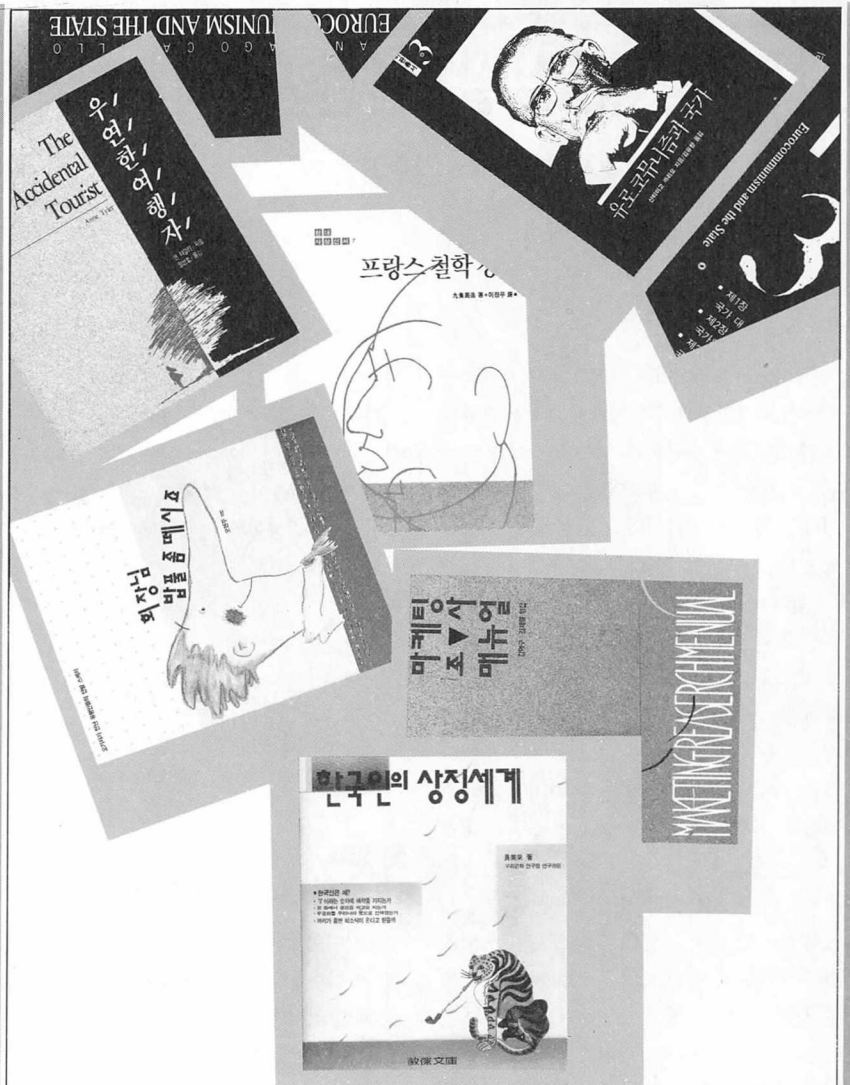
이것은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 국가권력의 역할 없이 종교적 신앙을 단일화시킬 수 없었던 근대 서구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서 롤즈 교수는 의미심장한 주장을 끌어내는데, 현대 서구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특정한 권위에 의해 주도되는 포괄적 자유주의의 이상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결과 자유주의적 국가란 포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촉진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적 이상들을 자유롭게 번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국가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 점이야말로 롤즈 교수의 주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결실이다.

그런데 밀이나 로크 등의 근대 자유주의자들에 비하자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훨씬 나이브하다. 롤즈 교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칭한 바 "민주주의 사회의 공공문화", 또는 거칠게 표현해서 미국의 동부지역 자유주의자들에게 통용될 법한 직관적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의 이론화의 귀결은 일반적인 인간문제의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미국 제도에 대한 하나의 변형이 된다. 홉스 또는 밀의 자유주의와 다르게 롤즈의 자유주의는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양카라, 델리, 페테르스부르크 또는 상해의 시민들에게는 거의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인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의 시민들이 겪는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 롤즈는 침묵한다. 결국 그들은 미국식 제도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인들은 그들의 모델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어버린다.

역시 지난 십년간 격동했던 세계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롤즈는 침묵하고 있다. 용의주도한 독자라면 「정치적 자유주의」가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극적인 변천들, 예컨대 로마제국의 붕괴에 필적할만한 소련의 붕괴라든지, 요즘도 정치철학자들 사이에 격렬하게 전개되는 경제적 정의를 둘러싼 논쟁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를 눈치챌 수 있는 독자라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들이 롤즈식 자유주의의 추상적 테마속에서는 문화적 아이덴티티-인종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문제로 치환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롤즈의 새 책은 밀의 저서에서 발견되는 많은 지적 덕목을 갖추고 있다. 명료성, 엄밀성 그리고 공정성 등등. 반면 이 책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관점의 협소함과 주제의 국부성 그리고 이 시대의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낯설 정도의 침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적 자유주의」가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면모는 그 속에 정치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공허감에 있다.



좋은 책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표지디자인—신뢰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

DESIGN FORUM

5 1 1 1 7 2 1

디자인포럼은 최첨단 매킨토시 시스템을 갖추고 본문편집디자인, 조판, 출력을 원하시는 출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조판에 있어 디자인, 서체, 그림, 도표, 이미지러기법 등을 화면상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효과는 2배, 비용은 일반전산과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디자인포럼의 실적 등 회사안내서를 원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자인포럼이 강남출판문화센터로 이사했습니다.

주소: 135-120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4층
 전화: 511-1721(대표번호) 팩스: 511-1724
 개업일: 1989년 1월 4일
 주업무: 광고, 표지디자인, 단행본출판대행
 주거래처: 교보문고, 한길사
 매킨토시 기종: IIci, IIsi 등 5대, 스캐너, 300DPI 프린터기